



가정예배 순서지

찬식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시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시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앙고백

다 같이

새찬송가 559장(통305)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새찬송가 559장

1절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절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 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찬 송

다 같이

대표기도

가족 중

성경봉독

빌립보서 4:4

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 같이

말 씬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가정'

인 도 자

새찬송가 85장(통 85) '구주를 생각만해도'



새찬송가 85장

1절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뵈을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2절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3절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4절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5절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찬 송

다 같이

“한해 동안 열매 맺게 하신 감사와 기쁨의 제목을 적고 나눠보세요.
가정과 개인에게 주신 기도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가족기도

다 같이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가정

코로나19로 인해 추석명절을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기쁨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데, 기쁨이 없다면 심각한 일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빌3:1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빌4: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환경적인 조건에서 기쁨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통해 기쁨을 얻으려 하고, 물질을 통해, 결혼을 통해, 자녀를 통해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물질을 잃으면, 배우자가 내가 바라던 사람이 아니면 그 삶에 기쁨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사람과 물질로 인해서 오는 기쁨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떠나고, 물질이 사라지면 그로 인한 기쁨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늘 변하는 사람과 물질에서 얻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에 대해 예고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제자들은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그렇게 된다고 하겠습니까?

요16:22 **지금 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때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우리가 누구 안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출산을 앞둔 여인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과 두려움이 언제 사라지나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이를 보게 될 때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쁨만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터지는 순간은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보게 될 때입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기쁜 일이 많이 생기기를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고, 누군가 나를 기쁘게 해 주기를 기다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 또한 가족들끼리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살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도록 서로를 권면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